# 관광명소·문학골목에 시판 세운다

〈詩板〉

■광주문인협회 올 사업계획 발표

## 인문학 강좌 시민에 개방
## 광주문학사 발간 추진도

광주문인협회(회장 탁인석)는 올해 연표 위주 문학사가 아닌 지역 문단 뒷이야기를 담은 문학사를 정리하고, 관광 명소와 문학공원, 골목 등에 시판(詩板)을 만들 계획이다.

문인협회는 문학을 내실화하고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학 공유화 사업 등을 위주로 하는 '2021년 사업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먼저, 평생교육 차원의 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문협 차원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문학적 글쓰기 강좌 외에 인문학 전반에 걸친 강좌를 연다는 복안이다. 특히 회원 외에 인문학 강좌를 신청하는 시민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시화가 있는 '거리문학관' 조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구별 관광 명소와 작고 문인 생가가 있는 문학골목, 산책로 등에 문학 시판(詩板)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판은 나무판에 디자인을 가미해 교체도 가능하도록 제작하고, 지난해 제작한 시낭송 영상콘텐츠와 연계해 치유와 정서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기관지 '광주문학'도 연 4회 발행한다. 올해는 각 구별 문화와 예술, 관광을 특집 기획으로 꾸며 다채롭게 채운다.

또한 '광주문학사' 발간을 위해 원로 문인들의 문단사를 구술 채록할 계획이다. 연표 위주의 문학사에서 벗어나 '그 때 당시' 문단의 이야기 중심으로 정리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광주문학 봄호에는 작가 이지흔 등이 참여해 소설의 문단사를 기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골목길 작은 문학관-시판 세우기.

문협이 주최한 시 낭송회 장면.

시낭송 콘서트도 예년처럼 추진한다. 각 구별 문학 예술 명소에서 시낭송을 열 계획으로, '현대시로 읽는 광주'를 주제로 할 예정이다. 특히 5·18를 전후로 벚꽃이 피는 무렵에 서호시화(운천저수지 옛지명)전을 개최해 의미를 되새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영상 제작과 아울러 야외 시낭송은 신축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문협 홈페이지 는 지역 문인들의 교류와 참여를 높이는 중요한 매개체다. 문협은 '작가의 서재' 등 자유게시판을 통해 행사와 공지사항을 알리고,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장르별 작품게재, 포토 갤러리 등을 매개로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탁인석 문인협회 회장은 "올해는 문협의 건전한 발전과 창작활성화에 협회 운영의 초점을 두겠다"며 "기존에 진행해오던 시낭송회, 시화전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젊은 작가지망생들과 연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전남문화재단, 마한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기초사업 추진

## 국가사적 지정·홍보 역량 집중
## 자문위 구성 전문가 의견 수렴

전라남도문화재단은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 제정에 힘입어 올해부터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기초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핵심사업으로 마한고분군 국가사적 지정과 마한역사문화 교육·홍보사업 등 2개 분야에 연구 역량을 집중한다.

재단은 사업에 앞서 3월 중 마한사 복원·연구 및 정책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계·언론계·활용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조언을 수렴할 계획이다.

첫번째 핵심사업인 마한고분군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 흩어져 있는 마한역사 자료집성 사업을 확대·추진한다.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마한총론, 주제별 연구총서를 분야별로 발간한다.

지금까지 '전남의 마한유적'(2019), '전남의 마한 분묘유적'(2020)이 발간됐고 올해는 '전남의 마한 취락유적'을 펴낸다. 또 '생산 및 패총'(2022), '관방유적'(2023)도 발간 예정이다.

전라남도문화재단이 올해부터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기초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사진은 나주 복암리 고분.

마한사 실체 규명을 위한 조사·연구사업도 활성화한다. 2월 전남도와 영암·함평군의 지원을 받아 영암 내동리 쌍무덤(도 기념물 제83호)과 함평 금산리 방대형고분(도 기념물 제151호·제152호)에 대한 연차적 발굴조사를 실시해 그 성과를 도민과 함께 공유한다.

또한 10월경 사적 지정 당위성 확보와 '고대 해상왕국 마한'을 주제로 학술포럼, 웹툰·학술·미술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동시에 사적 지정 신청서 작업도 병행한다.

두번째 핵심사업은 마한역사문화 교육·홍보사업으로 지역민이 마한의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부사업으로 5월부터 지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사캠프, 마한유적 탐방·답사, 발굴현장 견학, 명사 초청강연, 마한영상·책자 제작 등 마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도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인류애 실천한 광주 근대 인물의 삶 동화로

## 손예빈 작가 '버드나무 숲' 펴내

최흥종, 서서평, 우일선 등 가난한 약자 편에 서서 인류애를 실천한 광주의 근대 인물들의 삶을 그린 이야기가 장편동화로 발간됐다.

나주 출신 손예빈 작가가 펴낸 '버드나무 숲'(은소래)은 1880년대 동갑내기인 일선, 서평, 흥종이라는 인물을 모티브로 전개된다. 각기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조선의 전라도에서 만나 뜻 깊은 일을 하며 아름다운 동역을 이뤄나간다는 얘기다.

이들 세 주인공은 나환자들을 돌보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데 헌신했다. 세 인물이 병자를 치료하고 걸인들을 돌보며 살았던 당시 양림리와 광주천을 거닐며 나누었을 이야기는 작가의 마음에 무한한 상상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제목 '버드나무 숲'은 삶에 지친 이들에게 버드나무 숲과 같은 쉼과 평안, 위로를 주었던 세 인물의 사랑과 소통, 나눔을 상징한다. 작품은 '2020 우수출판콘텐츠'로 선정됐으며, 책에는 '흥종과 서평과 일선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지도와 인물과 관련된 다양한 사진들이 수록돼 있다.

손 작가는 "어떤 명예도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측은지심과 형재애, 인류애를 가지고 박애정신과 이웃사랑을 실천했던 흥종, 서평, 일선, 세 분의 삶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큰 행복을 선물 받은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 출신 손 작가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했으며 2006년 '약단지를 품에 안고'로 아동문예 문학상을 수상했다. 2018년 장편소설 '호랑가시나무언덕'으로 2018 백호임제문학상 나주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박주현 지휘자 위촉

## 국악관현악단 한상일 연임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박주현(40) 지휘자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한상일(66) 지휘자가 최근 이용섭 광주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박주현 지휘자는 최근 진행된 공모에서 최종 선정돼 15일부터 2년 동안 지휘봉을 잡게 됐다. 박 지휘자는 소년소녀합창단을 대표하면서 공연계획 수립, 공연제작 등 단체 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한다.

그는 미국 유타대학교 대학원에서 합창지휘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아리조나대학교 대학원에서 합창지휘 박사과정을 이수했다. 미국 유타주에 위치한 하이랜드 고등학교에서 음악교사를 지냈으며, 아리조나대학교에서는 음악이론과 서양음악사 강사로 활동했다.

국내에서는 국립합창단 부지휘자, 화성필코러스 지휘자,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전임지휘자로 활동했다.

박주현 지휘자

한상일 지휘자

2019년 1월18일부터 시립국악관현악단을 이끌어온 한상일 지휘자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전문인사들로부터 재위촉과 관련해 재임기간 공연실적, 단체기여도 등의 평가 및 자문을 받아 만장일치 의견으로 재위촉됐다. 이에 따라 한 지휘자는 앞으로 2년간 시립국악관현악단을 다시 이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베토벤 '첼로 소나타 2번·3번' 만나다

## 윤소희 독주회 25일 유·스퀘어 문화관

베토벤이 작곡한 다섯 개의 '첼로 소나타' 중 두 곡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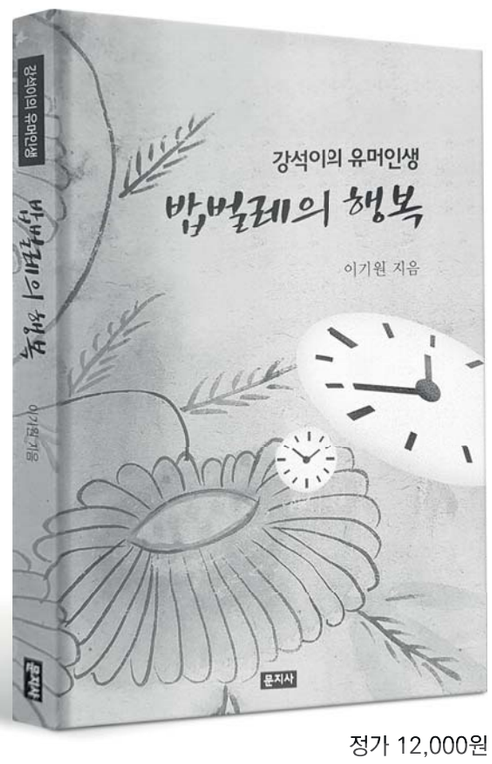
첼리스트 윤소희〈사진〉 독주회가 오는 25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에서는 '첼로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2번 작품번호 5'와 '첼로 소나타 3번 작품번호 69'를 들려준다.

'첼로 소나타 2번'은 최초의 현대적 첼로 소나타로 꼽히며, '3번'은 대중들에게 친숙한 작품이다. 특히 '첼로 소나타 3번 작품 69'는 다섯곡의 '첼로 소나타'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곡으로, 베토벤 중기의 '걸작의 숲'을 대표하는 실내악 곡이다.

윤소희는 전남대와 동대학원 음악학과에서 첼로를 전공했으며, 독일 라이프찌히 국립음대에서 전문연주자, 실내악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광주교대, 목포대에 출강하고 있으며 올해 창단 10년을 맞은 '랑현악4중주단' 멤버로도 활동중이다. 전석 초대. 문의 062-268-1717.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정가 12,000원

전라도 촌놈 이기원이 쓴
'밥벌레의 행복'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강석이의 유머인생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쭈그리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지은이 이 기 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전주(영풍문고, 웅진서적, 홍지서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에스24 (배송료 무료)